

세계 양궁 선수단 “슬로우시티·민주화 도시에 반했다”

광주시관광공사, 이집트·에콰도르 선수단 ‘호스트 시티투어’ 진행 5·18묘지·양림동 펭귄마을·담양 죽녹원 등 찾아 역사·자연 만끽

광주와 담양을 찾은 세계 양궁 선수단이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슬로우 시티와 민주화 도시의 매력을 몸소 느꼈다.

11일 광주시관광공사가 주관한 ‘호스트 시티투어’에 참석한 이집트와 에콰도르 선수단 7명은 이날 5·18 민주광장, 전일빌딩, 양림동 펭귄마을, 담양 죽녹원 등을 찾아 문화와 역사를 느끼고 자연의 풍광을 오롯이 즐겼다.

죽녹원의 대숲을 거닌 이집트 선수단은 “하늘로 곧게 뻗은 대나무가 장관”이라고 입을 모았다. 점심으로 맛본 죽죽밥과 떡갈비도 호평을 받았다.

이집트의 지나 알리는 “대나무에 밤이 담겨 나오는 게 신기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었다. 우리는 무슬람이라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데 소고기로 만든 떡갈비도 맛있었다”고 말했다.

아메드 사마 이집트 양궁조직위 부회장은 연신 휴대폰으로 영상을 남기며 “카이로는 나일강 주변을 빼면 대부분 사막인데, 이곳은 초록빛으로 가득하다. 다시는 보기 힘든 풍경을 많이 담아가려 한다”고 했다.

대부분 해외 선수단은 본업은 따로 있고 양궁은 병행하고 있는 등 엘리트 스포츠로 자리잡은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분위기였다.

이집트 국가대표 바하 암(Bahaa amr)은 의사로 일하면서도 선수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이집트에서는 양궁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정부가 대표팀에는 투자하지만 선수 개인에게 별도 수입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장비와 대회 출전비용을 선수 스스로 마련해야 해 다른 직업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나 알리도 그래픽디자인으로서의 꿈을 위해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아메드 부회장도 이집트의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를 찾아 탄흔을 직접 살펴보고 남구 양림동 고택과 공예 거리 등을 둘러본 에콰도르 선수단은 80년대 복장을 입어보고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달고나 뷔프’ 등을 체험하며 색다른 경험을 했다.

파블로 토랄은 “오징어게임을 봤는데 똑같이 우산 모양을 보고, 아 이걸 고르면 안되는 거구나 생각했다”며 웃었다.

마지막 장소로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이들은 “듣기만 했던 민주화의 도시라는 점이 생생히 다가왔다”며 숙연한 분위기 속에 발걸음을 옮겼다.

전시관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학생들을 비롯해 시민들이 학살됐던 80년 광주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이들은 한탄을 내뿜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묘지 앞 분향소에서 참배한 뒤 한강작가의 ‘소년이 온다’ 주인공 문제학 열사의 모형을 찾았다.

이날 전통문화·역사 체험을 한 참가자들은 “한 나라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메드는 2010년 일어났던 이집트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설명하며 “이집트에서는 30년 동안 집권한 대통령이 있었고, 시민들이 타흐리르 광장에 200만명이 넘게 모여서 정권을 바꿀 수 있었다. 경찰은 철수해버려서 우리 스스로 집을 지켜야 했고 매우 힘든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



이집트 양궁 선수단 지나 알리(왼쪽부터), 바하 암, 아메드 사마, 유소프가 11일 담양 죽녹원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억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매년 그들을 기리고,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생명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콰도르의 파블로 토랄은 “그런 참혹한 일을 겪었는데도 이를 극복하고 자부심을 갖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에디 에콰도르 양궁 연맹 회장은 “자유와 민주화를 회복하기 위해 희생한 이들

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후손들의 노력이 깊이 다가왔다”고 밝혔다.

타나도 “민주화 승리를 기념하는 자제가 인상적이었다”며 “자신의 나라에서는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점이 대비되어 더욱 크게 느껴졌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김진아 기자 jinggi@
/특별취재팀 사진=박연수 기자 training@



직업교육 박람회

11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2025 광주 직업교육 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직업계고와 유관 기관의 홍보·체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주노동자 겨울 작업복 나눔하세요

전남노동권익센터, 10월15일까지 수거...19일 진도서 나눔

이주노동자를 위한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가 열린다.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오는 10월 19일 진도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한 겨울옷·작업복 나눔 행사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노동·시민단체와 전남도, 고용노동부, 아름다운가게 등이 참여해 힘을 보탠다.

지난해 행사에는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1만 벌의 겨울옷과 작업복이 전달됐다.

올해 행사를 통해 수거된 의류는 직접 세탁·

건조 과정을 거쳐 이주노동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9월부터 진행중인 겨울옷과 작업복 수거도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

문경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작업복 나눔 행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방한복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한 계기”라며 “회사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겨울옷과 작업복을 기증해주는 것만으로 타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제동’...법원 “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 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

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토부는 실제로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지난해 12월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

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광양 섬진강끝들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선정

전남도 “문화예술·생태체험 만끽”

광양 진월면 섬진강끝들마을이 전남도의 '9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됐다.

섬진강끝들마을은 섬진강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체험형 마을로,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농촌 힐링 명소다.

섬진강 자전거길과 맞닿은 대규모 유채꽃밭은 지역을 대표하는 봄 풍경으로 알려져 있다. 폐교된 진월중을 리모델링해 만든 캠퍼스, 작은 미술관, 실내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 투어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색을 내는 천연염색 체험 등도 진행중이다.

마을 인근에는 백운산자연휴양림, 광양와인동굴, 하동·구례와 연결되는 섬진강변 드라이브 코스 등으로 1박 2일 이상 여행 코스로도 제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촌의 전통적 이미지에 문화예술과 생태체험이 더해진 섬진강끝들마을에서 가을 농촌의 매력과 여유로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